알바 알토의 유기주의 건축과 가구디자인 비교연구

정현경*, 이희원*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e-mail : coco2578@naver.com

A Comparative Study of Alvar Aalto's Architecture and Furniture Design

Hyeoun-Kyeoung Jung*, Hee-won Lee*
*Department of Architecture, SunMoon University

요 약

20세기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은 사회적,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수립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알바 알토는 모더니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축가이자 가구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의 건축디자인과 가구디자인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바 알토의 건축디자인 특성을 가구디자인과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알바 알토의 건축 디자인 특성 중 유기적 측면에서 정리된 디자인의 불연속적 특성, 불규칙적 특성, 통합적 특성, 자연요소의 특성의 측면에서 그의 가구디자인 사례를 건축디자인과 비교하여 가구디자인에 반영된 건축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20세기의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은 사회적, 시대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수립하고자 다양한 유형의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그중 가구를 미적이고 사회적이며 이념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알바알토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모더니즘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축가이자 가구디자이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알토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모더니즘에서 추구되어 온 이념들을 바탕으로 건축분야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디자인을 중심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바 알토의 유기적 건축에 대한 이론과 배경, 그에 따른 건축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런 성격이 알토의 가구디자인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알토의 유기적 특성의 디자인

2.1. '유기적'의 개념

(1) 응용적 측면

'유기적'이란 의미가 자연과의 관련성을 가지게 된 것은 생명과학 및 진화와 관련을 맺고 전개되었을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명과학과 진화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서 '유기적'이란 '전체는 부분들을 모은 것 이상'이라는 의미로 전개되어 전일적이거나 전체성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2) 은유적 측면

건축을 포함한 예술분야에 있어서 유기성의 표현은 디자이너의 정서적인 면과 경험적인 면에서 고려된 선택을 통하여 시스템 내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선택과정에 있어서 인식의 하부구조로서의 지성과 경험은 창조자의 과거 기억을 통한 이미지의 작용 및 지속성과 연속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시간이라는 동적조건 하에서 지각을 거쳐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기적'의 개념이 예술과 건축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적용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각 부분들이 미적근원을 지닌 균형 있고 조직화된 기능적 전체로 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1]

2.2. 알토의 유기적 디자인의 사상과 배경

(1) 낭만적 풍토주의

낭만적 풍토주의(National Romanticism)는 19세기

말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풍미한 낭만적 특성을 띤 지역적 풍토주의 문화예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영국의 미술공예운동, 유럽대륙의 아르누보 운동과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

핀란드 고유의 북구적인 요소와 고전적 토속주의는 외양적인 양식을 넘어 알토의 건축적 인식의 장에서 끊임없이 이해되고 수행되었다. 즉, 핀란드의 역사성 및 민족성과 낭만성은 알토의 작품을 서정적이고 개성과 독창성이 강한 낭만성적 성격을 띠게 하였으며 자국의 자연과 환경을 융화시킴으로서 독특한 예술 감각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이러한 낭만적 풍토주의의 건축 원형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건축을 하나의 정해진 질서나 규범 속에 계속해서 종속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끊임없이 조화하면서 성장,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즉 이것은 알토의 불규칙한 형태적 특징이 낭만적 풍토주의의 문맥 속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의식적으로 추구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2) '성장', '적응'의 유기적 개념

알토의 형태 구성의 원리는 '성장'과 '적응'의 의미에 따른 형태의 윤곽의 변화로 특정 지을 수 있다. 건축에 있어 알토는 '질서'를 항상 성장하고 적응해 나가는 변형적 개념으로 보고 그러한 성장과 적응의 분류학적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질서개념은 이성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에서 소외된 보다 무의식적이고 감각적이며 관습적인 적정성을 갖는 또 다른 질서 감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알토의 질서 개념은 '특이한 형태', '불연속성', '점진적 분절', '매개를 통한 융합' 등의 개념으로 축약되며 이들 개념들은 항상 상호배타, 보완적인 관계를 취하며 알토의 형태적 특징을 유지시키고 있다. 공간의 융통성과 확장의 개념은 알토의 건축에서 강의실, 극장, 연주실의 음향적 고려사항이 형태 발생원이 되어 나타난 일정치 않은 경사지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포괄적 자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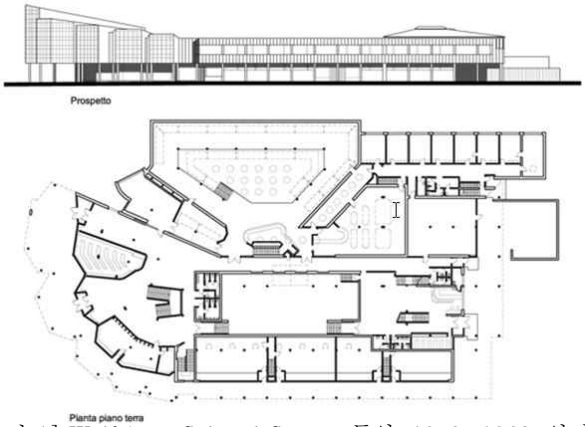
알토의 건축을 특정지우는 요소의 많은 부분은 핀란드의 자연(울창한 숲과 수많은 호수 등)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으며 일생을 통해 전개하여온 작품에서 나타난 그의 작가정신은 핀란드 특유의 민족성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다.

즉, 알토에게 있어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성숙한 상태, 조화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후에 알토는 인간간의 관계, 조국의 자연이 보여주는 환경심리, 건축에 있어 북구적인 독창적 표현주의 등에 의해 그의 사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휴머니즘은 자연과 반응하는 양상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1]

3. 알토의 유기적 건축 특성과 가구 디자인

3.1. 불연속적 특성

알토의 공간에서 볼수 있는 유기적 특성은 구조적 불연속에 있다. 내외부의 불연속, 전후면의 불연속 등은 그의 건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다. 특히 그의 공간에서는 기둥, 하중벽, 간막이 등이 계속적으로 변화하여 수직적인 연속성이 상실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그것은 단면에서 공간적 연속성의 부정으로 구성적인 법칙을 예측 할 수 없게 만든다.[1]



[그림 1] Wolfsburg Cultural Center, 독일, 1958-1963, 입면과 1층

특히 '볼프스부르그 문화센터'에서 나타나는 그의 공공건물 계획안은 인간의 심리적이고 기능적 요구로부터 내부공간이 분할될 수도 통합될 수 도 있는 형상의 평면구성과 내부공간 형태로 전개되고 다시 외부형태로 표출되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곡선과 부정형의 건물형태는 '자연의 다양성이 지닌 전체형태와 이념과 유사한 생명력이 있는 형태'로 기관들이 조합된 분절형태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캔틸레버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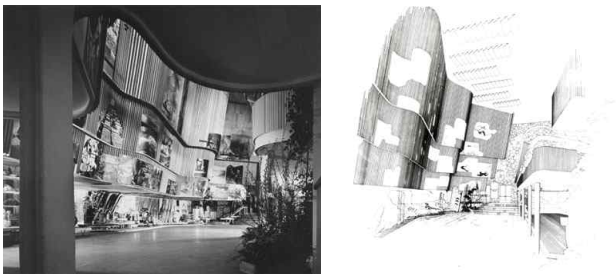
알토의 '캔틸레버 의자'는 요양소라는 환경적 특성을

바탕으로 자연의 유기적인 재료의 선택과 부드러운 형태와 더불어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946년 캔틸레버 의자에 알토는 나사로 부착되어진 면직물을 엮어 이 기법과 함께 사용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천연직물이나 등나무, 비닐, 가죽 또는 캔바스 천이 사용되어지고 있다.[2]

알토의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유기적인 특성인 불연속이라는 특징이 천연재료와 다른 재료들이 엮이는 의자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2. 불규칙적 특성

알토는 1938년에 쓴 “Finnish Architecture Review”에서 ‘모든 형식적 강요는 건축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투쟁을 방해하고 그래서 그것의 의미와 잠재성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며 형식적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인간의 감상을 구사함으로써 그의 작품경향을 특이한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그림 3] Finnish Pavilion, at the 1939 World's Fair, 뉴욕

이러한 자연의 유기체적 형태는 ‘뉴욕세계박람회의 핀란드 전시관'에서 파동형의 벽면으로 발전하여 현저하게 극적인 전시공간을 실현하게 되었다. 그것은 실로 장엄하게 파동치는 벽면이 관객을 향해 앞으로 경사져 있고 이 벽면을 배경으로 핀란드의 풍경과 생산물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그러나 그것의 실제 의도는 예술적 표현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제로 알토의 디자인 개념의 중요한 상징인 개방되고 폐합되는 '숲 공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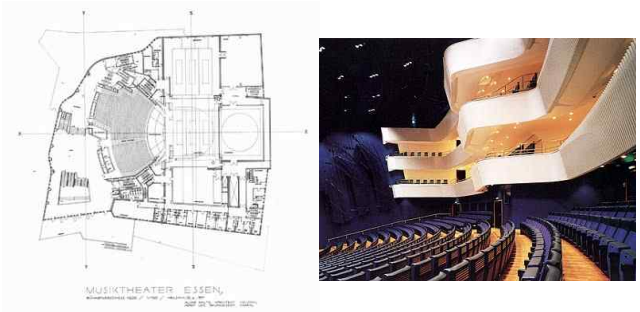
[그림 4] Alvar Aalto Vase, 1936 (Savoy Vase)

가구의 유려한 선은 알토의 곡선적인 벽들과 굴곡진 천장들과 함께 조화되어 하나의 작품을 이루어낸다. 그것은 그가 핀란드 호수의 굴곡진 외곽으로부터 디자인 모티브를 얻었음을 보여준다.[2]

알토의 가구에서는 시각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기하학적 요소와 금속을 위주로 한 여러 재료들을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주의 스타일의 르 꼬를뷔제의 가구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차이점이기도 하다. 이는 그의 가구가 핀란드의 전통적인 재료와 유기적인 선으로 인해 자연스러움을 주기 때문이다.

3.3. 통합적 특성

알토는 전적으로 불규칙적인 기하학을 사용하여 그것을 고차원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적 통합을 이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공적인 형식으로 규칙적인 형태와 불규칙적인 형태를 통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규칙성을 통하여 그의 건축은 전체적 통합성을 이룩하였으며, 생물학적 세계의 모델을 따라가기도 하였다.[1]



[그림 5] Essen Opera House, 1959-1988, 독일

알토는 그의 대부분 극장 건물 공간구성에 매개적인 건축요소를 통해 내부에서의 감각적인 조절과 함께 내적 응집력을 획득하는 설계를 많이 하였다. 이러한 조절은 사람의 개인적 이동과 집단적 움직임을 최대로 고려한 것으로 전체적 유통체계를 조절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 자신이 건축가이자 가구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가구, 조명기구, 유리제품, 조경디자인까지 모든 계획을 통합적으로 설계함으로써 토탈 디자인의 개념으로 건축물과 함께 조화를 꾀하였다.

[그림 6] Paimio Chair, 1932

이렇듯 알토의 가구는 각 공간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핀란드 자연의 특성과 기술적, 경제적 요소를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전체

적인 공간 구성에서 세부 디테일 및 가구에 이르기까지 종합예술의 추구로 제작된 것이다.[2]

3.4. 자연요소의 특성

알토의 모든 건축 작업에 나타나는 주된 사상은 자연과 인간의 문제이며 건축은 이들과의 조화로운 삶의 터전이다. 특히 핀란드의 지역성과 기후 등을 고려한 그의 작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자연과의 결합이며 그의 건축에는 이러한 요소들과의 결합을 위한 배려가 기술적으로 또는 세심한 계획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빛, 채광의 문제는 알토의 건축에 있어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핵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구의 특이한 기후에서 오는 빛에 대한 갈구로 그에게 공간 안에서 살아 있는 빛, 그가 말하는 '생물학적 빛'을 만들도록 하였다. 조명기구의 다양한 디자인과 채광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빛에 대한 그의 초기적 실험은 비푸리 도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알토는 독서에 알맞은 균등한 조도를 위해 전면의 천창을 지양하고 작은 원통형 천창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천창과 고창의 형태는 작품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하며 건물의 규모에 따라 외부 창만으론 실내 채광이 부족한 부분에 천창이 도입되는 등 그의 건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1]

[그림 7] Four-legged Stool E60, 1933

알토는 핀란드의 천연자원인 자작나무 숲의 영향을 받아, 당시 의자 프레임의 주재료인 강철관을 탄력적인 자작나무로 대체하였으며, 건축과 가구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활동과 인체의 형태에 따라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4. 결론

알토는 합판화된 나무를 이용한 선의 미학을 만들어갔다. 1930년대 후반까지 그는 급격한 커브를 이용해 모난 것을 부드럽게 하고, 가구의 재료 및 재질을 차가운 재료인 금속에서 나무로 바꾸어 근대 가구의 폭을 넓혀 나갔다.

이와 같은 알토의 작품경력에서 발견되는 중심 주제는 바로 자연과 인간, 재료를 통한 건축의 진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모더니즘의 틀을 벗고 과거 역사성의 인식 아래 성장, 적응의 변형적 개념으로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추구했던 인물이다.

곡목가구와 램프의 유기적인 디자인으로부터 모든 구조를 그 풍경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까지 알토가 이룬 모든 것에는 핀란드 건축가가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느꼈던 깊은 조화가 담겨 있다.

즉, 알바 알토의 가구 중심 사상은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자연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조형의 모티브와 생명원리를 제시하여 합리주의와 유기주의 방식을 함께 조화시켰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낭만적 풍토주의와 인본주의를 추구하였다. 이것은 곧 알토의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포함한 포괄적 자연관을 대변해주고 있다.

알토의 가구 디자인의 전개방향으로는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깊은 감수성으로 유기적 합리성을 이루려한 한 점과, 기하학적 형태와 자연의 모티브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켰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가구 재료와 형태에 반영하였고, 가구를 인간과 자연경관 사이의 매개물로 표현하였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간공학적 가구 형태를 표현하였다.

즉, 알토는 기계를 거부하고 자연에서 모티브를 형성한 디자인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안에 가구를 인간 공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의 가구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형태를 반영한 유기적인 형태와 기하학적 형태가 합리적으로 조화됨으로써 시각적 편안함과 알토 자신의 독특한 지역주의적 특성이 나타난다.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충식 의자를 개발하여 인체의 형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사용자를 더욱 편안하게 하였다.

핀란드의 전통적인 재료인 자작나무를 중심으로 새로운 곡목기술과 목재 접합기법을 기도하였다.

참고문헌

[1] 이종선, “알바 알토의 유기적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회지 12호, 1997

[2] 이진영, “르 꼬르뷔제와 알바 알토의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3권 5호 2004

[3] 구글 이미지 검색(검색어는 각 그림의 제목)